

지역 소식통

제9대 고창군의회
당선인 상견례 개최

고창군의회는 지난 16일 오전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9대 고창군의회 의원 당선인 간 상견례를 개최했다.

제9대 고창군의회 의원 당선인은 가선거구(고창,고수,신림) 조만규, 이정신, 박성만, 나선거구(심원,흥덕,성내,부안) 최인규, 임종훈, 다선거구(공음,성송,대산) 임정호, 오세환, 라선거구(아산,무장,해리,상하) 조규철, 차남준,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이선덕 등 10명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9명(비례대표 포함),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상견례는 당선자 10명이 모두가 참석하여, 회기 운영계획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요 사항 안내 및 의회시설을 견학하였고 오는 7월 예정된 제9대 의회 첫 임시회와 개원식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7월 4일 첫 임시회는 의장·부의장 선출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며 이후 개원식을 통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보건소

임산부 태교교실 운영

부안군 보건소는 관내 임산부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7월 한달간 비대면 임산부 태교교실을 운영한다.

태교교실은 보건소 등록임산부 40명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모유수유 등을 주제로 오전반 4회, 오후반 4회로 총 8회 전문강사의 교육이 Zoom앱을 통해 진행된다. 또한, 임산부들의 스트레스 완화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만들기 프로그램도 구성하여 개별 가정에서 만들기 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는 22~28일 보건소 모자보건실(☎580-3885)에서 유선으로 진행(선착순 마감)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태교교실이 임산부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여 건강한 아기의 출산을 도울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저소득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정읍시, 최대 145만원 차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8200여 가구 혜택

정읍시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생계비 증가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을 위해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금이다.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급되며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5월 29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등이다. 정읍지역에서는 약 8,2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 예상된다.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와 급여 자격별로 차등 지급하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지원된다.

지급 방식은 지원 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지역구 분 없이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유흥업종과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하고,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시는 이번 지원금이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과 가계 부담 완화를 물론,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530-54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길고 길었던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 대상자 중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그동안 코로나 19로 개최되지 못했던 부안 곰소갯길발효축제가 3년만에 대면행사로 오는 10월중에 개최될 전망이다.

“잊을수 없는 추억과 감동을”

부안 곰소갯길발효축제, 3년만에 10월 대면 개최

그동안 코로나 19로 개최되지 못했던 부안 곰소갯길발효축제가 3년만에 대면행사로 오는 10월중에 개최될 전망이다.

부안군은 지난 16일 곰소갯길센터 대회의실에서 김광욱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과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곰소갯길발효축제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축제시기와 장소, 추진 기본방향 등을 결정했다.

군은 축제가 열리는 10월에는 코로나 19로 많은 예약을 받았던 부분들이 해소되어 일상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곰소갯길시장을 중심으로 대면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온라인 문화가 실생활에 확산, 정착된 점

을 감안해 온라인 축제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방문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되고 참신한 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행사기간중 합인특가 판매 등을 통해 곰소갯길의 소비촉진과 판로 확대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광욱 곰소갯길발효축제추진 위원장은 "3년만에 열리는 축제를 통해 곰소갯길의 맛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라며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잊을수 없는 추억거리와 감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외토·외일마을 건강영향조사 청원 불수리 결정

고창군 성내면, 표준화 암 발생비·역학적 특이성 등 종합결과

고창군은 성내면 외토·외일마을 집단 질병 발생에 따른 주민들이 건강영향조사 청원 결과를 전북도청에서 불수리 결정되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마을 주민들은 2021년 2월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에서 폐비를 생산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집단 질병이 발생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왔다.

그해 3월 고창군은 가축분뇨재활용 시설에 보관 중인 폐비의 성분과 곰팡이 독소, 마을 주변의 토양·하천·저수지·지하수(음용수), 대기질 등 6개 분야에 대해 환경조사 전문기관인 에스지환경기술원, 전북복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12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하천수, 호수수, 지하수(음용수), 토양 등이 환경기준의 법적 기준치 이하로 검출돼 주민들이 생활하는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12월27일 전라북도 건강영향조사 청원을 요청했다. 이후 전라북도 환경보건 조례에 의거 청원신청에 따른 서류 검토결과, 국립암센터 등 전문기관의 자료와 암발생 현황 및 분석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건강영향조사 청원 요청에 수리하지 않도록 통보했다.

환경오염도 조사결과 중금속 등 주요 발암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 국립암센터에서 분석한 성내면 월성

리 외토·외일마을 암 발생이 특정시기에 집중해 발생하지 않았고, 특정 위험물질과 집단발생 암종의 관련성에 대한 압증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전국·전북대비 높다고 해석할 수 없었다.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대해 불수리 통보 했지만, 전라북도와 고창군에서는 가축분뇨재활용시설에 대해 악취 방지시설 보완과 개선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군청 이성수 생태환경과장은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대해 불수리 결정이 나왔지만 사업장에 개선명령과 강력한 행정지도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대표 농특산물 제주도 상륙작전 '대 성공'

정읍시의 대표 농특산물인 단풍미인 씨없는 수박과 토마토 등 신선 농산물이 제주도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시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제주도 서귀포농협 하나로마트 본점과 한림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정읍 농산물 특관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특관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을 돕기 위해 정읍시와 단풍미인조합 공동사업법인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시는 농업인이 정성껏 재배한 씨없는 수박과 토마토, 방울토마토 등 정읍 신선 농산물 판촉 행사에 앞장섰으며, 약 2천5백만원의 수익을 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타일세일 판매와 시식 행사를 통해 정읍의 우수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제주도 소비자들은 농업인들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구매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판촉 활동을 통해 정읍 농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려 농가 소득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정향누리배 전국 중·고교 배구대회 개막

대한민국 배구의 미래를 빛낼 유망주들이 대거 출전하는 '2022 정향누리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대회'가 정읍에서 열린다.

한국 중고배구연맹이 주최하고 정읍시 배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7일부터 24일까지 총 8일간 개최된다.

대회에는 전국 55개 중고등학교 배구팀 총 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의 성장과 각 학교의 명예를 걸고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된다.

국민체육센터에서는 남자고등부, 정읍체육관에서는 남중부와 여중부, 신태인체육관에서는 여자고등부팀이 각각 조별리그 후 토너먼트를 통해 최고의 팀을 가릴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다만 경기장 입장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취식은 금지된다.

이번 대회의 모든 경기는 유튜브 채널 AI Sports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스포츠 중흥도시 정읍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